

2015년도 학술답사 보고서

■ 국어학반

1. 답사 개요

- (1) 일시: 2015년 5월 14일(목)~16일(토)
- (2) 장소: 충청남도 홍성 일대
- (3) 주요 활동: 5개 조로 나뉘어 홍성 지역의 방언을 조사함.
충남 보령, 예산, 홍성, 서산의 명승지를 답사함.
- (4) 참가 인원:
교수(6명): 장소원, 전영철, 정승철, 황선엽, 김현, 문숙영
조교(1명): 김소영
대학원생(25명): 김태인, 김정주, 사례, 김수영, 김송희, 최진, 박성
미, 김푸른솔, 발테르, 박혜승, 윤예진, 김지은, 김고
은, 최종원, 이형주, 나래, 강영리, 장요자, 손시단, 홍
아림, 고재필, 장소운, 배운정, 강규영, 마야 아타예바
학부생(10명): 이윤복, 정우현, 박세은, 한지수, 이예은, 박지호, 이현
지, 이민지, 김예솔, 김민정

2. 답사 일정 및 활동 내용

- (1) 5월 14일
 - 보령시 대천해수욕장, 오천항 관광
 - 홍성군 광천읍 광천장 관광
- (2) 5월 15일
 - 10:30~17:30 조사지로 이동, 방언 조사
 - 18:30~20:30 저녁 식사 및 방언 조사 보고
 - 20:30~ 뒤풀이

(3) 5월 16일

- 홍성군 한용운 생가, 김좌진 생가 관람
- 서산군 해미읍성 관광 후 귀경

(4) 방언 조사

- 장소: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면 홍북로 375 동방송 마을회관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면 대동리 170-21 대지동 마을회관
- 제보자 정보

① 동방송 마을

- 유우희(81세) 홍성 태생, 타지 경험 없음.
- 김원예(67세), 홍성 태생, 타지 경험 없음.

② 대지동 마을

- 조수양(93세) 홍성 태생, 타지 경험 없음.
- 유진순(87세) 천안 태생, 17세에 결혼으로 홍북면으로 이주 후 70년
홍북면 거주
- 이은채(78세) 예산 태생, 18세에 결혼으로 홍북면으로 이주 후 60년
홍북면 거주
- 김홍남(85세), 홍성 태생, 타지 경험 없음.

(5) 조별 조사 내용

- 1조: 음운체계 및 어휘(농경, 음식, 가옥) 조사
- 2조: 음운체계 및 어휘(가옥, 의복, 민속) 조사
- 3조: 음운체계 및 어휘(민속, 인체, 육아) 조사
- 4조: 음운체계 및 어휘(친족, 동물) 조사
- 5조: 음운체계 및 어휘(식물, 자연) 조사

■ 고전문학반

1. 답사 개요

(1) 기간: 2015년 5월 14일(목)~2015년 5월 16일(토)

(2) 지역: 전남 순천 일대

(3) 참가인원

선생님: 박희명, 이종묵, 나수호, 서철원

조교: 최어진

박사과정: 김민영, 조혜진, 홍진옥(3명)

석사과정: 안준석, 윤병용, 이소윤, 김혜진, 이민주, 신철우, 이한석, 강나
래, 남윤혜, 박성혜, 전기화, 양설, 장문완, 곽보미, 표가령, 투
이(16명)

학부생: 우보영, 유수빈, 문요한, 심다은, 최경민, 김희재, 나경찬, 이석
화, 이수빈, 장서현, 조영웅, 추성훈(12명)

2. 답사 일정

고전문학반은 5월 14일 오전 8시쯤 집결하여 전남 순천으로 출발하였다. 가는 도중에 점심식사를 위해 오수휴게소에 들렀다. 첫 답사지인 소록도에 가기 전에 전남 고흥군에 위치한 거금도 익금 해수욕장에 들러 바닷바람을 쐬었다. 단체 사진을 찍고 잠깐의 시간을 보낸 뒤 소록도로 장소를 옮겼다. 버스를 타고 거금대교를 건너 소록도로 가려 했으나 거금대교에서 모두 하차하여 소록도까지 걸어갔다. 거금대교는 복층구조의 다리로 되어있어 2층은 차도이고 1층은 보행자 도로여서 바다를 바로 옆에 두고 걸어갈 수 있는 하나의 산책로처럼 구성되어 있었다. 소록도까지의 거리가 꽤 멀었지만 가는 내내 모두 주변 바다 풍경에 감탄을 자아내며 가벼운 발걸음으로 소록도에 도착할 수 있었다. 소록도 내의 중앙공원은 일제 강점기에 강제 수용되

있던 한센병 환자들이 손수 가꾼 공원이다. 그들의 힘든 강제 노동의 결과가 우리 눈앞의 아름다운 정원이었기에, 이는 우리를 더욱 숙연하게 만들었다. 소록도를 조용히 둘러 본 후, 저녁식사를 하고 순천만 부근의 한옥 숙소에서 첫째 날을 마무리 하였다.

둘째 날은 순천만 자연생태공원에서 첫 일정을 시작하였다. 약 800만평이나 되는 자연 상태의 갯벌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다. 자연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 발아래로는 갯벌에 사는 다양한 생물들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중간 중간 모여서 사진도 찍으며 순천만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를 향해 올라갔다. 전망대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것이 조금 힘든 코스이긴 했지만 그 곳에서 내려다 본 순천만은 그야말로 장관이었다. 순천만에서 오전 일정을 보내고 딱갈비 정식으로 점심을 먹었다. 오후에는 순천만 정원에 둘러 각자 자유롭게 관람을 하였고, 순천만 정원 관람 후에는 뿌리깊은나무박물관에 갔다. 이곳은 고(故) 한창기 선생이 생전에 모으신 유물을 전시하고 있는 곳으로, 다양한 작품 및 수집품들을 볼 수 있는 곳이었다. 선생님들의 특별한 부탁으로 고소설 작품 원본을 우리가 직접 한 장 한 장 넘겨 볼 수 있는 기회도 있었고, 책판(冊版)도 실물 그대로 구경해 볼 수 있었다. 이렇게 둘째 날의 일정을 마친 뒤 저녁은 숙소 사장님의 도움을 받아 숙소 마당에서 숯불구이로 직접 해먹었다. 저녁 식사가 끝난 뒤 답사에서 빠질 수 없는 레크레이션 시간을 가졌다. 두 사회자의 알찬 구성 덕분에 모두가 지루할 틈 없이 참여할 수 있었다. 조별로 여러 가지 게임을 하며 술도 마시고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며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 갔다. 특히 조별 게임에서 선생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둘째 날 밤의 분위기는 한층 더 무르익어갔다.

마지막 날은 선암사 아래에서 다도예절을 배우고 선암사를 둘러보는 것으로 일정을 마무리 했다. 선암사까지 가는 산길이 매우 잘 되어 있었고, 주변의 계곡과 어우러져서 자연그대로를 느낄 수 있는 곳이었다. 선암사 아래에서 비빔밥으로 맛있는 점심을 먹고 2박 3일의 알찬 일정을 마무리하고 서울로 돌아왔다. 학부생과 대학원생 그리고 선생님들과 함께한 2박 3일간의 답사는 하나의 새로운 추억을 남겨 주었다.

■ 현대문학반

1. 답사 개요

(1) 기간: 2015년 5월 14일(목)~16일(토)

(2) 장소: 군산 및 고창, 부안, 서천 일대

(3) 대상작가: 채만식, 서정주, 신석초, 심훈

(4) 참가인원

지도교수(5명): 신범순, 양승국, 김유중, 김종욱, 손유경

인솔조교: 노태훈

박사과정(5명): 임미주, 유연주, 임희현, 홍승진, 김효재

석사과정(16명): 김희경, 강문희, 페브리아니, 김민수, 김윤주, 인아영,
임진하, 정계룡, 박지은, 진 영, 김재현, 김춘규, 손혜
경, 빅토리아, 장종주, 전세진

학부생(21명): 이해인, 우영호, 권하정, 박세윤, 김제훈, 김태균, 백종
륜, 김태규, 안선희, 신예리, 김여름, 이채은, 이정훈,
위세라, 왕 혜, 이경인, 김민성, 박운이, 남기완, 조유
빈, 최희승

2. 답사 일정

국문과 학부생실과 대학원 연구실은 1동 2층에 나란히 위치한다. 가까운 공간에 있지만 학기가 시작되면 각자의 생활에 바빠 친해질 기회가 없는데, 그런 와중에 1년에 한번 있는 답사는 학우들과 얼굴을 맞대고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는 특별한 기회가 된다. 오전 8시 현대문학반은 학교에서 출발하여 군산으로 향했다. 이번 답사는 시작부터 끝까지 양승국 선생님께서 캠코더로 동영상 촬영을 맡아주셔서 즐거운 순간을 고스란히 담아낼 수 있었다.

4시간을 달려 전북 군산에 도착하니 점심시간이 되었다. 답사의 목적 중 하나가 지역 맛집 탐방인데, 이번에도 학우들을 실망시키지 않았다. 도란도란 모여앉아 우렁 찜밥을 먹고, 첫 행선지인 채만식 문학관으로 향했다. 채만식 문학관은 소설 「탁류」의 배경인 금강변에 위치해 있다. 채만식의 사진과 함께 작가의 육필원고, 편지, 졸업증명서 등이 전시되어 있어 흥미를 더했다. 2층 전시실에는 채만식에 관련된 연구서들이 단행본부터 최근 학위는 문까지 전시되어 있어 채만식에 대한 연구자들의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근처에는 채만식의 생가터와 묘소가 있었다. 생가터는 임피면 사거리에 비석만 남아 있었다. 버스로 이동하면서 석사생 인아영이 조사한 〈채만식 연보〉를 읽고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채만식은 이곳 임피면에서 1902년에 태어나 임피 보통 학교를 졸업하고 서당에서 한문 수업을 받았고, 1950년 49세의 일기로 폐결핵과 가난으로 생을 마감하였다. 우리는 계남마을에 위치한 묘소를 찾아 작가 이무영이 쓴 묘비명을 읽어보고 선생을 기렸다.

채만식의 소설에도 드러나듯이 군산은 호남지방의 쌀을 일본으로 반출했던 수탈의 현장이기도 했다. 군산시에서는 ‘군산근대역사벨트 스탬프 투어’라는 문화 행사를 기획하여 스탬프를 찍으며 근대 건축물들을 둘러볼 수 있도록 해 놓았다. 지금은 카페로 운영되는 일본식 건물 미즈상사에서 시작하여 군산세관, 근대건축관(구 조선은행 군산지점) 등을 차례로 둘러보았다. 마지막 목적지인 진포해양테마공원에 도착하여 마지막 스탬프를 찍자 군산의 명물 찰보리를 주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그렇게 하루 일정을 마치고 숙소로 도착하여 불 앞에 모여앉아 고기를 먹으며 피로를 풀었다. 학우들끼리 각자 자기소개를 하고 답소를 나누면서 답사 첫째날 밤이 그렇게 깊어갔다.

둘째날 아침, 시원한 소고기 무국으로 속을 풀고 식당을 나서니 맞은편에 익숙한 모습의 사진관이 눈에 들어왔다. 기억을 더듬어보니 영화 〈8월의 크리스마스〉의 배경이었던 ‘초원 사진관’이었다. 창가에 걸린 사진 속에는 배우 심은하가 영화에서의 모습 그대로 웃고 있었다. 기념사진을 한 번씩 찍고, 골목길을 걸어 신흥동 일본식 가옥으로 향했다. ‘히로쓰 가옥’이라고 불리는 이곳은 군산 지역의 유명한 포목상이었던 히로쓰가 건축한 전통 일본

식 목조가옥이다. 영화 <타짜>의 촬영 장소가 되면서 유명해졌다. 7자 모양 건물 사이에 일본식 정원이 작게 꾸며져 있어 고적인 분위기를 자아냈다. 다음 행선지 동국사는 1909년 일본 승려에 의해 창건된 국내 유일의 일본식 사찰이다. 에도시대 건축 양식으로 지어진 동국사는 처마의 장식이 화려하지 않고 지붕이 급경사를 이루어 한눈에 보기에도 한국 절과 다른 모습이었다.

군산을 떠나 전북 고창으로 이동했다. 전북 고창군 선운리(질마재 마을)은 미당 서정주의 고향이다. 박사생 홍승진이 조사를 맡아주어 시인의 생애를 되짚으며 미당 시문학관으로 향했다. 미당 시문학관은 폐교를 새롭게 단장하여 운치가 있었다. 문학관에서 서정주의 시를 읽고 담쟁이 잎이 뒤덮인 창가에 서니 들뜬 기분이 가라앉고 고요한 마음이 들었다. 다음 행선지는 동백꽃으로 유명한 선운사였다. 5월인지라 동백꽃을 볼 수 없었지만,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절은 색색깔의 등으로 단장하고 있었다. 바람을 따라 흔들리는 등의 물결을 보며 동백꽃을 보지는 못했지만 선운사를 노래한 두 시인의 시를 떠올릴 수 있었다.

고창을 떠나 부안으로 향하던 중, 부안에 위치한 문인들을 위한 창작공간에 <아내가 결혼했다>의 작가 박현욱이 머무르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다행히 연락이 닿아 우리는 박현욱 작가를 만나 평소 소설을 읽으며 궁금했던 것을 질문할 수 있었다. 원래 펜션이었으나 개인 창작자를 위한 공간으로 단장한 공간 ‘변산바람꽃’은 바다가 보이는 곳에 위치해 있어 창작에 관심이 많은 학우들의 부러움을 샀다. 박현욱 작가는 주된 관심사가 사람 간의 관계이고 그래서 남녀간의 사랑이야기를 계속 쓰게 된다고 말하며 창작할 때의 즐거움과 괴로움에 대해서 진솔하게 말해주었다.

둘째날의 숙소는 바닷가에 있는 군산대학교 해양수련원이었다. 그날은 스승의 날이어서, 조출하게나마 선생님들을 위한 깜짝파티를 준비했다. 케이크와 요리 경연대회의 결과물을 나눠 먹으며 각 조가 준비한 장기자랑을 구경했다. 평소에는 알 수 없었던 학우들의 노래실력이나 연기실력이 드러나기도 해서 모두가 놀랐다. 갓 입학한 학부생부터 대학원생, 선생님까지 흥이 올라 밤늦게까지 술자리는 끝날 줄을 몰랐다.

서울로 돌아가는 마지막 날, 아쉬움을 달래고자 한산모시관과 신석초 시비를 들렀다. 한산모시관에서는 전통방식 그대로 입으로 모시를 만드는 과정을 볼 수 있어 흥미로웠다. 한산모시관 뒤편에 있는 신석초 시비에는 <꽃잎 절구>라는 시가 새겨져 있었다. 학우들이 모여 함께 시를 음미하며 바라춤의 시인 신석초를 떠올렸다. 서천 문화원에서 받은 신석초 시집에 실린 시를 읽으며 서울로 돌아오는 동안 짧지만 많은 것들을 보고 많은 사람들과 어울린 2박 3일을 되새겨 보았다. 군산에서부터 서천까지 긴 여정이었지만 모두가 함께 해서 피곤한 줄 몰랐던 뜻깊은 답사였다.